

사노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츄즈 투 챌린지'(Choose To Challenge) 캠페인 동참

- * 사노피 글로벌 본사, 3 월 8 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전 세계 임직원의 참여로 다양성 향상을 위한 도전 의지를 표명하는 글로벌 캠페인 '츄즈 투 챌린지' 동참
-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다양성 클럽, 다양성 위원회, 세일즈내근직 순환 보직 등 사노피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여성 리더들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츄즈 투 챌린지'에 동참했다.
 (왼쪽 상단부터 배경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박희경 사노피 젠자임 사업부 대표, 왼쪽 하단부터 김은주 인사부 부사장, 박선미 홍보부 전무)

대한민국 서울, 2021 년 3 월 8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가 3 월 8 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츄즈 투 챌린지(Choose To Challenge)'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츄즈 투 챌린지'는 2021 년 세계 여성의 날 글로벌 캠페인의 공식 슬로건으로,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노피 글로벌 본사는 손을 높게 드는 포즈의 사진과 함께 다양성 향상을 위한 도전 의지를 담은 포스팅을 #ChooseToChallenge, #IWD2021 해시태그를 넣어 SNS 에 게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2 월 26 일(파리 시간 기준)부터 3 월 8 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국내 임직원을 포함한 전 세계 사노피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동참했다.

사노피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도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매년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사노피 한국법인의 여성 직원 비율은 전체 임직원의 약 46%이며, 여성 임원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 따라서 이미 국내 그리고 글로벌 사노피 내에서도 성별 다양성에서 앞서가는 만큼 올해부터는 다양성의 정의를 확대하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건의할 수 있는 '다양성 클럽'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부서와 내근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바꿔 1년간 근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일즈-내근직 순환 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배경은 대표

"다양성과 포용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덕분에 한국에서는 직원들의 성별 균형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직원들, 서로 다른 세대의 직원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다양성을 강점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날로,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쫓겨간 것에서 시작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직원 경력개발 워크샵, 멘토링 콘서트 등 다양성에 대해 직원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기업 문화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